

1. 「상법」상 상사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원(法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약관규제법 ② 국제법규 ③ 회사정관 ④ 상관습법

2. 「상법」상 제4조(당연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기명의란 상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 ② A가 B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B가 당연상인이다.
- ③ 자기명의로 영업성을 가지고 상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상인이다.
- ④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 단계에서 개업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당연상인의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3.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의 적용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정한 목적
- ②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 ③ 손해를 받을 염려
- ④ 상호사용의 묵시적 허락

4. 「상법」상 의제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 ② 세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의제상인이다.
- ④ 고속도로 휴게소에 직판장을 차려놓고 자신이 수확한 사과를 판매하는 자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상법」상 자연인인 상인이 상인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때
- ② 폐업신고를 한 때
- ③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 ④ 피성년후견선고를 받은 때

6.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인으로 본다.
-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그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7. 다음 중 「상법」상 소상인에게도 적용되는 규정들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행위	나. 상호	다. 영업양도
라. 지배인	마. 상업등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지배인은 다른 지점의 지배인을 겸직할 수도 있다.
- ③ 회사의 경우 특정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본점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 ④ 지배인 선임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선임에 의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상법」상 지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지점 지배인이 해당 지점의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②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용도를 밝히지 않고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금전소비대차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 ③ 10억 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은행 지점장의 대리권 범위를 제한한 경우 이러한 제한이 있음을 알고도 지점장이 발행한 액면가 15억 원 어음을 취득한 자에 대해 은행은 지급책임이 없다.
- ④ 지배인은 영업주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지만,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다.

10.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업주가 수 인의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지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② 공동지배인이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동지배인 가운데 1인에 대해서만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영업주에 대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친다.
- ④ 공동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11.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현지배인 규정에 의해 영업주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본점 또는 지점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가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는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표현지배인은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다.

12.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은행 중앙로지점 지점장
- ② B건설회사 용산창고관리소 소장
- ③ C주식회사 명동지점 영업본부장
- ④ D수산회사 영업총괄 본부장

13.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업주로부터 수권 받은 대리권의 범위가 특정한 영업의 특정사항에 제한된다.
- ② 선임 또는 해임의 경우에도 등기할 필요는 없다.
- ③ 지배인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수권 받은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4. 다음 중 「상법」상 상호의 등기 및 상호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그 상호를 등기한 자는 2주간내에 그 폐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나. 상호를 등기한 자가 그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다. 회사의 상호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라.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15. 「상법」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③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점포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6.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합자회사의 상업사용인이 B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 ② A주식회사의 상업사용인이 B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 ③ 개인 상인 甲의 상업사용인이 A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경우
- ④ 개인 상인 甲의 상업사용인이 개인 상인 乙의 상업사용인이 되는 경우

17. 「상법」상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업사용인이 그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그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② 상업사용인이 그 거래를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한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한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8.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더라도 회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호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상호에 그 업종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19. 「상법」상 상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인인 상인의 상호는 그 등기가 강제되지 않는다.
- ② 자연인인 상인이 상호를 등기한 후 그 상호를 변경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서울특별시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서울특별시에서 동종 영업을 아닌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0. 「상법」상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명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합자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유한책임회사가 가등기한 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군이라도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있다.

21.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의 적용 요건 중 오인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의 “보령제약 주식회사”와 수원의 “보령약국”
- ② 지주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대성홀딩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성지주”
- ③ 통신회선 임대사업의 “주식회사 파워콤”과 전자제품 도소매업의 “파워콤 주식회사”
- ④ 아파트 상가 내 식료품점인 “삼성슈퍼”와 “(주)삼성전자”

22. 「상법」상 상호폐지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 ② 상호권자가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 ③ 미등기 상호권자는 손해를 받을 염려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④ 등기상호권자에게는 상호폐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23. 「상법」상 상호의 양도와 폐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호는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상호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③ 상호의 양도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24.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정한 목적
- ② 외관의 존재
- ③ 명의사용의 허락
- ④ 상대방의 오인

25.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사이에서 명의대여가 무효인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인정된다.
- ②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명의차용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지만 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 ④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6.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② 명의차용자의 어음수표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③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이어야 한다.

27. 「상법」상 상업사용인 중 대리권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주식회사의 지배인
 - ② 개인 상인 B의 공동지배인
 - ③ C합명회사의 영업과장
 - ④ D물건판매 점포의 점원
28. 「상법」상 상업장부의 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마이크로 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 ② 상업장부의 보존기간은 그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표 기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상인이 영업을 폐지하면 상업장부에 대한 보존의무를 면한다.
29.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등기의무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등기한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2주 내에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부실등기를 한 자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주장할 수 없다.
30.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는 제37조에 규정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자연인인 상인이 절대적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③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
 - ④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31.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의 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대차대조표는 재산목록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 ④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2. 「상법」상 부실등기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기관 즉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자권자는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의 책임을 진다.
 - ③ 제39조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등기신청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일반을 뜻한다.
 - ④ 선의의 제3자는 부실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3.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해산등기는 제37조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의 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중인 회사이다.
 - ② 상업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하는 효력만 가질 뿐이고, 등기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하는 공신력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기한 자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상대적 등기사항은 등기한 이후에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그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4. 「상법」상 부실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실등기를 믿고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분 양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경우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 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39조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
 - ③ 합병회사에 있어서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판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더라도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35. 「상법」상 상업등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가. 상호등기부 | 나. 미성년자등기부 |
| 다. 법정대리인등기부 | 라. 지배인등기부 |
| 마. 합자조합등기부 | 바. 선박등기부 |
| 사. 상호보험회사등기부 | 아. 외국회사등기부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 대상은 개개의 영업용 재산 또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이다.
 - ②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재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 ③ 영업양도는 병존하는 당사자간의 채권계약으로서 개인법상의 특정승계이다.
 - ④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명시적·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37. 「상법」상 영업양도의 절차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개인상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상법상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 ② 주식회사가 자신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된다.
 - ③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합의가 없으면 양도인과의 고용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영업양도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하여야 하고, 채권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이전하는 등 각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행위를 해야 한다.

38.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②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 ③ 경업금지 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39. 「상법」상 영업양도에 있어 영업상 채권자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은 변제책임을 진다.
 - ② 영업양도인을 위한 보증인은 영업양도로 영업양수인을 위한 보증인이 되지 않는다.
 - ③ 채권자가 영업양도시에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양도인에 대한 영업으로 인한 채권을 영업양수인에게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양도인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권자는 영업으로 인한 채권을 영업양수인에게 행사하지 못한다.
40. 「상법」상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으로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포함한다.
 - ②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 ③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영업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④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